

# 국힘, 조속한 '비대위 전환'으로 수습 모색

## 이준석계 반발 속 지도부 공백 최고위 불발 권성동, 선수별 간담회·의총 소집 의견 수렴

최고위원들의 줄 사퇴로 사실상 지도부 해체 수순에 접어든 국민의힘이 1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사퇴와 함께 '조속한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수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이 비대위 체제 전환 불가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전국위 의장인 5선 중진 서병수 의원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최종 해결은 난망하다는 관측이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원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후 선수별 의원 간담회, 의원 총회를 잇따라 열어 비대위 전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으로서 이날 중으로 최종 결론이 모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대위 전환 문제와 관련 정미경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로 가기 어렵다"면서 "비대위는 당원권 6개월 정지가 아닌 제명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대표가 법적 대응을 하면 (법원이) 가져분을 받아주는 상황이 된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비대위를 띄우기 위해서는 '전국위 개최'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또 다른

난관으로 떠올랐다.

당 관계자는 "비대위위원장 임명 권한은 최고위에는 없고 전국위 의결이 있어야 한다"며 "비대위 안건 상정 권한은 당대표 직무대행에게는 없고 전국위 의장에 계만 있기 때문에 전국위 개최가 하나의 난관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국위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은 "비대위로 전환하려면 합당한 명분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이 없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친 이준석계를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서는 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사퇴하려면 원내대표에서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압박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라디오에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당대표 직무대행을 하는 건데 원내대표는 유지하고 당 대표 직무대행을 내려놓는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이제는 원내대표도 사퇴시켜야 한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한 비대위를

구성할 수 없고 권한대행을 사퇴하면 원내대표도 사퇴하는 게 법리상 맞다"며 "지도부 총사퇴 하고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에게 비상대권을 주는 게正道(正道)"라고 주장했다.

반면, 원내대표직 유지는 별개 문제라며 반대하는 입장도 나왔다.

하태경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권 원내대표를 바꿀 경우 혼란이 너무 극심하다. 당이 연착륙해서 빨리 안정을 되찾아야 하는데 당내 권력투쟁도 심해지기 때문에 현재 최소한의 안정 속에 변화를 추진한다면 비대위원장 정도 바꾸는 게 해법이라 본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권 원내대표는 조속한 비대위 전환을 위해 의원들과 접촉하며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오후 차례로 초선, 재선,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오후 3시에 의총을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으로 총의를 모으는 절차에 들어갔다.

당내 일각의 당헌상 근거 미비 등 문제 제기를 당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 의사 결정'을 통해서 돌파하려는 시도라는 관측이다. /김진수기자



혼란 상황 '질문세례'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혼란 상황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송갑석 "‘민주당 20년 미래위’ 구성하자"

## 민주당 재집권 위해 '시나리오 플래닝' 제안 "민주당·진보가 추구하는 가치 만들어 가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송갑석 후보(광주 서갑)는 1일 "민주당 20년 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해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을 수립하자"고 제안했다.

송 후보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당 안팎의 각 세대, 지역, 계층 등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민주당 20년 미래위원회'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그는 "미래 예측 시나리오를 그리고 이에 맞춰 대응책을 수립하는 일은 수많은 기관과 기업들, 외국의 정당들에서도 이미 하고 있는 일"이라며 "집권여당이

있고 다시 집권을 준비하고 있는 민주당으로서 이미 많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미래 예측과 이에 기반한 전략수립을 진행하는 '시나리오 플래닝'은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해 전략적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해 널리 쓰이는 전략 수립 방법이자 리스크 관리 기법이다.

송 후보는 "인구 감소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의 문제지만 수도권과 지역이 체감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며 "지역에서는 감소가 아니라 소멸이 화두"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금의 흐름이 계속 이어



져 10년 20년 후 함께 출산율이 0.5도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라며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목적지를 정하지 못한 사망 한가운데에서는 극단적 갈등이 필연적"이라며 "당 안팎의 각 세대와 지역, 지역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다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이에 기반한 전략수립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후보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산,

# 여야,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합의

여야가 오는 8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오는 8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행안위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출석 안건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는 오는 4일에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하고 지난달 28일 행안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류삼영 총경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